

[아티스트 노트]

쇼헤이 후지모토

저는 이번 공연이 COVID-19라는 특별한 시대에 "REAL"과 "REMOTE" 개념을 결합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전 세계 활동이 정지되었고, 모든 인종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접촉 없이 서로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적 경험의 가치가 크게 바뀔과 동시에 이 전무후무한 시간으로 하여금 물리적 체험이 주는 웰빙과 풍요로움의 의미를 재확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라이브 공연의 메인 주제는 "그림자", "상호 작용" 및 "지역 / 영역 / 영토"입니다. COVID-19로 인해 우리는 가상에서 누군가의 따스함을 느끼며 서로를 연결하고 개개인, 지역, 지방 그리고 외국 사이의 영역 그리고 거리감에 대해 생각하고 강하게 의식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창출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의 새로운 관점을 시각적 요소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저는 인천에서, 교카가 베를린에서 참가합니다. 저는 물리적 요소로 존재하고 교카는 동일한 공간에서 가상의 요소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공연에는 "TANGIBLE, INTANGIBLE"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빛(LED 디스플레이 및 레이저의 시각적 요소)과 베를린에서 원격으로 제어되는 사운드를 제공됩니다. 이 공연은 라이브 공연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 관념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거리의 개념을 접목시켜 관객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인 우리도 같은 목적과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물리적'의 정의와 거리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포착하고 느껴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퍼포먼스를 위해 3개의 LED 디스플레이와 레이저 모듈을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시각적 요소들은 "TANGIBLE and INTANGIBLE"이라는 시각적 개념을 테마로 제작되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적색 파장이 사람이 포착 가능한 가시광선 중 파장이 가장 긴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멀리 있는 물체에도 파동을 전달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공간을 부유하는 붉은 물결은 여러분 내부를 관통하여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보편적 감각에 닿을 수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노란색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포함된 노란색은 COVID-19로 인한 이물질 및 돌연변이를 나타냅니다. 즉, 주요 색상인 빨간색은 안정된 것으로 노란색은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색상은 파장의 구조와 느낌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흰색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행성 동물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모든 야생 동물들은 야간 투시경 카메라를 통해 흰색 또는 회색으로 변환되는 것 처럼요. 이처럼 흰색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할 때 사용하는 색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기회를 주신 파라다이스 시티에 감사드립니다.